

# KRIVET Issue Brief

2013

31호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3년 7월 15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학 전공 선택의 배경과 노동시장 성과 :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34.8%로 1/3 이상을 차지함. 반면 원하는 전공이나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경우는 37.9%에 불과함.
- 전공 선택의 경우에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경우는 22.9%이고, 성적에 맞춰서라는 응답은 13.1%임.
- 전공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 전공 만족도는 3.54점(5점 만점)으로 성적에 맞춘 경우(3.25점)보다 높음.
-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취업률이 높고(82.6%) 취업의 질이 좋음(월평균 소득 217만7천원).
-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 월평균 소득은 195만4천원으로 성적에 맞춘 경우(200만9천원)보다 낮지만, 전공별로 비교하면 인문, 자연계열 이외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높게 나타났음.
-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에서 대학 전공 및 관련 직업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이에 기초한 대학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01 분석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 대학 전공 선택의 중요성

- 대학 진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공 선택은 의욕적이고 충실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졸업 후 갖는 직장은 물론 평생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대학 교육의 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공 선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 글에서는 대학 전공 선택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공 선택 사유별로 대학생활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함.

#### | 분석 자료와 용어 정의

-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년 졸업자 1차 조사 자료(2010GOMS1,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분석
  -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시점 대학 졸업생 약 18,000명(전체 졸업생의 약 4% 수준)을 2011년 하반기(졸업 후 약 20개월 경과 시점)에 조사
  -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성 확보
- 분석 대상: 4년제 대학 졸업생 12,169명 (전문대와 교육대 졸업자는 제외)



KRIVET 모바일홈

## 02 특성별 대학 전공 선택

### |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1/3 이상을 차지

- 대학을 선택할 때 원하는 전공이나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경우는 37.9%에 불과함.
  - 특히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34.8%로 높게 나타남.
-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음.
  - 반면, 예체능계열과 교육, 의약계열은 원하는 전공이나 업무관련 분야 때문에 대학을 선택한 비중이 각각 60.6%, 53.7%, 44.4%로 평균을 상회
  - 교육, 의약계열은 부모님·선생님 등의 권유로 대학을 선택한 비중이 1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대학 선택 사유

(단위: %, 명)

		성적에 맞춰서	원하는 전공, 업무관련 분야 공부 가능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	가까운 통학거리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명성)가 높아서	기타	총인원
	전체	34.8	37.9	11.8	4.2	3.5	7.8	276,482
성	남자	35.6	37.1	10.5	4.9	3.6	8.3	144,444
	여자	33.8	38.8	13.3	3.4	3.4	7.3	132,038
전공	인문	38.7	35.7	11.2	4.1	3.9	6.4	36,011
	사회	38.7	33.0	12.4	4.6	3.6	7.6	78,697
	교육	20.3	53.7	15.3	2.5	3.1	5.1	16,665
	공학	39.5	30.7	10.7	5.4	3.3	10.5	65,463
	자연	37.7	34.6	13.1	3.9	3.3	7.2	35,161
	의약	24.1	44.4	15.0	2.8	2.1	11.6	13,596
	예체능	19.3	60.6	8.6	2.6	4.2	4.7	30,889
	서울 소재	40.7	37.7	9.5	1.5	7.2	3.5	67,380
지역	경기,인천 소재	38.7	38.9	9.4	4.6	2.5	5.9	52,839
	기타 지방 소재	30.9	37.7	13.7	5.2	2.2	10.3	156,263
	상위 10대 대학	35.2	38.8	9.1	0.8	13.0	3.0	29,995

#### | 주 |

- 1) '기타'는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야간수업이 가능해서, 학비가 저렴해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등의 사유임.
- 2) 상위 10대 대학은 중앙일보 2010년 대학종합순위에 따른 상위 10개 4년제 대학임.

### | 전공 선택은 절반 이상이 흥미와 적성을 고려

- 전공 선택의 경우에는 학문적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이는 대학은 성적에 맞춰 선택하더라도 전공은 주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함을 시사
  -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는 경우는 22.9%이고, 성적에 맞춰서라는 응답은 13.1%에 불과
- 전공별로는 예체능과 인문계열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가 각각 79.8%, 60.9%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의약계열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한 경우가 47.7%로 매우 높고, 공학계열과 사회계열도 각각 29.3%, 27.4%로 평균을 상회함.

〈표 2〉 전공 선택 사유

(단위: %)

		밝은 직업 및 취업전망	성적에 맞춰서	학문적 흥미 및 적성 고려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	기타
	전체	22.9	13.1	51.5	10.8	1.6
성	남자	25.3	13.9	48.3	10.4	2.0
	여자	20.3	12.3	55.0	11.2	1.2
전공	인문	12.2	15.4	60.9	9.8	1.7
	사회	27.4	13.2	44.3	12.5	2.7
	교육	20.1	8.1	57.7	12.9	1.2
	공학	29.3	14.7	44.8	10.0	1.2
	자연	17.5	18.7	51.8	11.2	0.8
	의약	47.7	6.4	28.8	15.2	2.0
	예체능	7.3	6.2	79.8	5.8	0.8
	서울 소재	18.2	12.4	58.8	9.2	1.4
지역	경기,인천 소재	23.0	13.4	52.2	9.9	1.5
	기타 지방 소재	24.9	13.3	48.2	11.8	1.8
	상위 10대 대학	18.2	11.2	60.3	8.7	1.6

#### | 주 |

- 1) '기타'는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에, 기타 등의 사유임.
- 2) 이하에서는 '밝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은 직업 및 취업 전망, '성적에 맞춰서'는 성적, '학문적 흥미 및 적성 고려'는 흥미와 적성, '부모님/선생님, 친구/선배의 권유'는 주변 권유, '기타'는 기타로 표기

## 03 전공 선택 사유별 대학생들과 노동시장 성과

●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고, 성적에 맞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전공 선택 사유별로 전공 만족도(5점 척도)를 살펴보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3.54점으로 가장 높음.
  - 반면 성적에 맞춰서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각각 3.25점, 3.24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학교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보다는 편차가 작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졸업자들은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49.7%가 동일 전공을 선택한다고 응답
  - 흥미와 적성, 직업 및 취업전망을 보고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각각 57.9%, 51.8%가 동일 전공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반면, 성적에 맞춘 경우에는 31.6%, 주변의 권유로 선택한 경우에는 30.4%로 낮게 나타남.

## | 주 |

- 1) 전공/학교 만족도는 5점 척도, 졸업평점은 100점 만점임.
- 2) 동일전공선택 의향 비중은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학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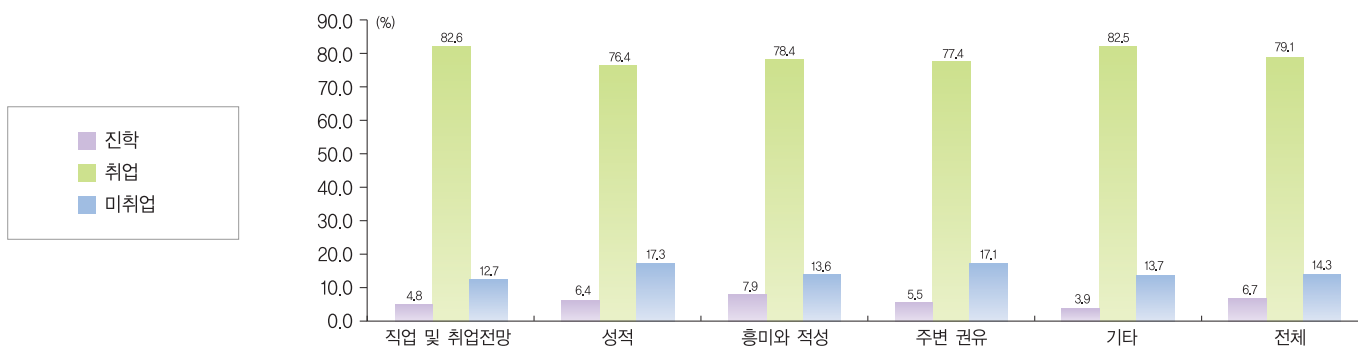
〈표 3〉 전공 선택 사유별 대학생들

(단위: 점, %)

	직업 및 취업전망	성적	흥미와 적성	주변 권유	기타	평균
전반적인 전공 만족도	3.49	3.25	3.54	3.24	3.30	3.45
전반적인 학교 만족도	3.35	3.25	3.31	3.19	3.26	3.30
평균 졸업평점	81.8	79.9	82.2	81.2	80.4	81.7
동일전공 선택 의향 비중	51.8	31.6	57.9	30.4	36.4	49.7

●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취업률이 높음.

-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조사시점 현재 82.6%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임.
  -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취업률이 78.4%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진학 비중이 7.9%로 평균보다 높음.
  -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경우와 주변의 권유로 선택한 경우에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17%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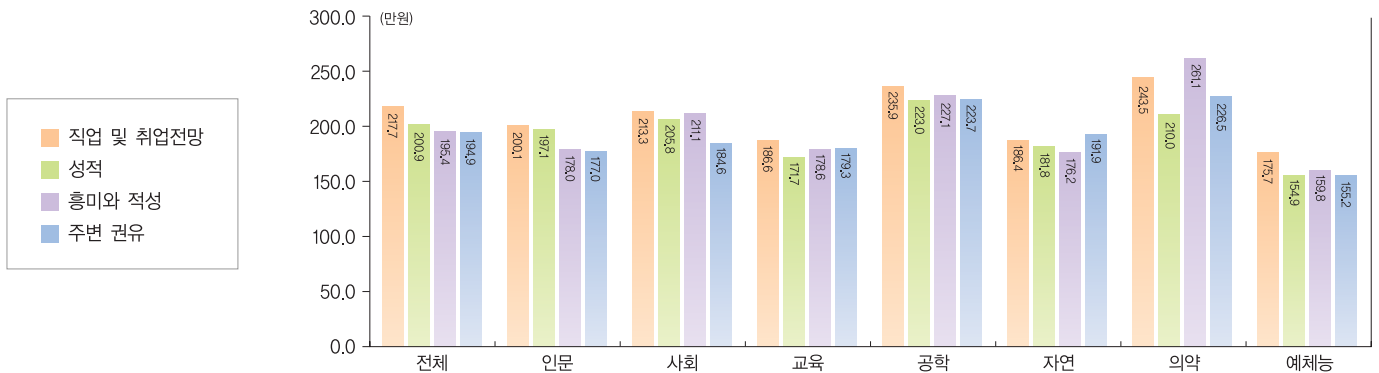


[그림 1] 전공 선택 사유별 취업 현황

● 전공별 월평균 소득은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성적에 맞추거나 주변 권유로 선택한 경우보다 다수의 전공계열에서 높게 나타남.

-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217만7천원으로 가장 높음.
  - 성적에 맞춰 선택한 경우는 200만9천원,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195만4천원, 주변의 권유는 194만9천원의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을 전공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전공 선택 사유별 소득격차의 전공별 차이가 확인됨.

-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한 전공 선택의 경우에는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높음.
-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는 소득이 낮지만, 나머지 계열에서는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를 주변 권유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연계열에서만 소득이 낮고, 사회, 공학, 의약, 예체능 계열에서는 소득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전공별 전공선택 사유별 월평균 소득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보다 업무-전공일치도, 직장 만족도가 낮음.

- 업무-전공 일치도는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한 집단과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집단에서 3.3점으로 높음.
  - 반면 성적에 맞춘 집단은 2.81점, 주변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은 2.96점으로 보통 이하임.
  - 직장 만족도와 업무 만족도의 경우에도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경우와 주변의 권유로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 전공 선택 사유별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5점 만점)

	직업 및 취업전망	성적	흥미와 적성	주변 권유	기타	전체
업무-전공 일치도	3.32	2.81	3.31	2.96	3.02	3.21
직장만족도	3.57	3.45	3.52	3.46	3.37	3.52
업무만족도	3.60	3.48	3.62	3.50	3.37	3.58

## 04 시사점

- 중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에서 대학 전공 및 관련 직업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이에 기초한 대학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또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전공 및 학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업 시 업무-전공 일치도와 직장/업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청년층이 흥미와 적성을 살려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전망에 부합되는 형태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함.

정 재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은 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